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청주교육대학교

# 진로가이드북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



청주교육대학교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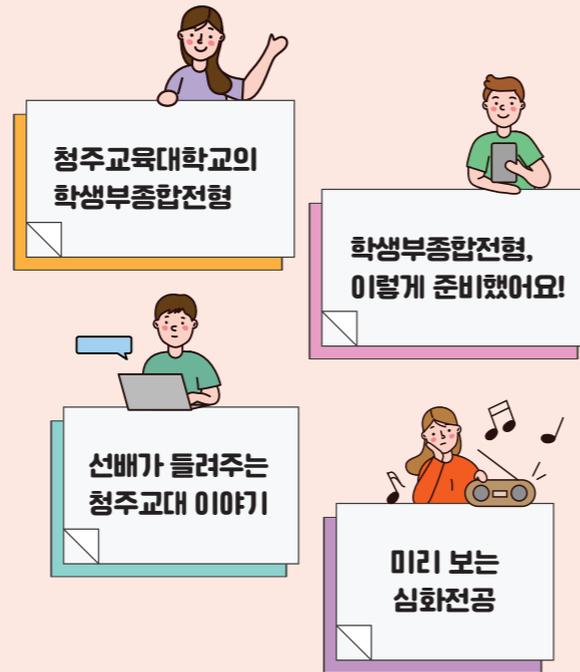


청주교육대학교

# 진로가이드북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ONTENTS

- 03 **청주교육대학교의 인재상**
- 04 **청주교육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이란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학생부종합전형 A to Z
- 10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했어요!**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준비  
 예비 청주교대생들에게
- 32 **선배가 들려주는 청주교대 이야기**  
 강의 및 대학 생활  
 동아리  
 교육실습  
 해외교육실습 및 해외교육봉사  
 장학제도  
 생활관(기숙사)
- 44 **미리 보는 심화전공**

## 청주교육대학교의 비전과 인재상

### 인성을 갖춘 교육실천가

- 아동이해 및 공감
- 협력적 소통
- 교직 윤리

### 시야가 넓은 교육지도자

- 인간과 자연에 관한 통찰
- 다양성 및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 미래 지향적 리더십



### 창의적인 교육전문가

- 자기주도적 탐구
- 통합적 수업 실행
- 반성적 성찰



## 학생부종합전형이란?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서류평가와 면접고사를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부분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학생들의 학업능력, 소질과 적성, 그리고 성장과정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학과에 적합하고 다양한 역량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험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노력의 모습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항목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하고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생활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이 대학생들도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입시 제도입니다. 여기서 고교생활이란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교과 및 비교과 분야에서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는 지원자가 대학에 진학해서 지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역량을 지녔는지의 여부입니다. 학교생활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본인의 학업역량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등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합니다.

## 2022학년도 청주교육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모집시기	정원구분	전형명	모집인원	모집비율
수시	정원 내	학생부종합(배움나눔인재전형)	90	28.9
		학생부종합(충북인재전형)	60	19.2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전형)	7	2.2
	정원 외	학생부종합(다문화가족자녀전형)	5	1.6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7	2.2
		학생부종합(장애인학생전형)	10	3.2
정시	정원 내	학생부종합(기회균형선발제전형)	8	2.6
		수능(일반전형)	125	40.1
합계			312	100

**최저학력기준** | 모든 전형에 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 서류평가

-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지원자 1인에 대하여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함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범위
  -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고교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
  - 2021년 2월 이전 졸업자: 고교 전체 학년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
- 평가영역 및 평가기준

평가영역	반영비율	평가요소
교직인·적성	균등 비율로 반영	교직적합성, 자기성찰역량 및 공감·소통 능력
창의적 탐구 역량		학업 수행 능력, 독서 및 탐구 활동
변화 리더십		잠재적 성장 가능성, 공동체 의식



- 서류평가 기준
  - \* 교직 인·적성 :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적성,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소통 능력을 평가
  - \* 창의적 탐구 역량 :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창의력을 갖추고 다양한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
  - \* 변화리더십 :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맞는 진취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평가

### 면접고사

1. 초등교사로서의 적성과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 면접방법
  - 개별면접(10분)
  - 복수의 면접위원이 종합평가함(지원자의 제출서류를 활용함)
  - 블라인드 면접 실시(면접용 가번호만 노출됨)
3. 평가영역 및 평가기준

평가영역	반영비율	평가요소
교직 인·적성	40%	교직 인·적성이 있는가
창의적 탐구 역량	20%	창의적 탐구 역량이 있는가
변화 리더십	20%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의사소통 능력	20%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가



## 학생부종합전형 A to Z

### 수시전형은 정말 내신을 안 보나요?

아니요, 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서류평가의 한 요소로 교과부분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합니다. 다만 교과등급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고 비교과 활동과 연계해 평가합니다.



###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 돼야 하나요?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등급을 정량(일정 점수)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전형입니다. 교과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 표준편차,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교과 성적의 기준은 없습니다. 특히 초등교사는 전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니만큼 두루 노력해야 하고 다양한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특정 교과를 편식한 학생보다 전 교과목의 활동이 우수하거나 왕성한 학생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 예체능 과목을 잘 못하는데 교대에 입학할 수 있나요?

네, 입학할 수 있습니다.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전 교과목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음악, 미술, 체육 과목에 성취도가 높은 학생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음식이나 몸치여서 특정 교과목의 성취도가 떨어지는 경우, 비교과 활동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대안을 보여주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학교생활기록부는 고교 재학 중 학생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의 성취 결과과정,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 등이 수록되어있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기록물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이러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통해 지원자의 전반적인 역량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교과, 비교과 전 영역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에 모든 영역이 중요합니다.

### 장래 희망이 3년 동안 꼭 초등교사여야 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초등교사에 대한 진로를 일찍 확정하고 준비하면 좋겠지만, 고교시절 독서, 동아리, 체험활동 등을 통해 새롭게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과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 진로희망은 이것이야' 보다는 진로희망 분야에 대해 더 알아가려는 노력, 그 과정을 거치며 갖게 된 진로희망을 높게 평가합니다.

### 봉사활동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규칙적이어야 하나요? 교육봉사 꼭 해야 하나요?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주로 멘토링 활동이나 교육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상 교육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교육봉사를 못했다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학은 봉사시간을 몇 시간 이상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봉사활동은 학생의 인·적성, 적극성, 주도성, 협력 정도, 사회성을 보여주는 활동이므로 단기간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에서 시간을 할애해 내 생각을 키우고 실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봉사활동을 권장합니다.

### 독서는 몇 권 정도 해야 하나요?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있나요?

우리 대학은 독서활동을 정량화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독서량도 중요하지만 어떤 책을 읽었으며 학생이 무엇을 기억하고 느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교직을 희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교직과 관련한 책을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독서를 통해 교직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고 지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도서를 읽고 생각을 정리하거나 교과 및 비교과에서의 연계 활동을 한다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상경력에 어떤 상을 기재해야 하나요? 등위가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수상경력에 반드시 어떤 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위(등수)로 정량화 하여 수상경력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한 대회에 참가하더라도 그 대회를 통해 자신이 느끼고 성장한 점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상경력에 기재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대회에 참여하거나 등위를 높이기 위해 애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수상실적이라면 어떤 상이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을 꼭 해야 하나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도 독서활동처럼 진로희망을 고등학교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활동입니다. 학내에 교육 관련 동아리가 없거나, 있어도 동아리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내에 교육 관련 동아리가 없다면 교대, 사대를 희망하는 친구들과 동아리를 만들어 지도교사와 정규 동아리로 발전시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아리 가입이 어려운 경우 다른 봉사 동아리나 기능 동아리 활동을 통해 예비교사로서의 품성 및 자질을 키우고 진로 탐색한 과정을 보여주면 됩니다.

### 리더십은 꼭 학생회 활동이나 반장을 해야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꼭 학생회 활동이나 반장만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장이나 회장으로 활동했다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활동, 일화 등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와 무엇을 느꼈는지를 면접에서 설명하면 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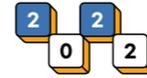
**Q.**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어떤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관리했나요?

**A** 교육에 대한 열정이 묻어나도록 어떤 활동이든지 교육과 연관 지어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매 학기마다 모든 과목에서 교육 관련 활동을 한 가지 이상씩 했으며, 저만의 교육관을 드러내며 3년간 이를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다문화 교육'과 '특수교육'을 키워드로 설정하여 3년 동안 이를 주제로 심화된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1학년 때는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2학년 때는 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3학년 때는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활동의 핵심은 단발적인 활동이 아닌 점차 심화되는 탐구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음악교육과 21학번 노○○

**A** 저는 모든 교과, 비교과 영역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에 교직에 대한 관심과 성실성이 보이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3학년 1학기에는 지적 호기심을 구체화시키고자 1, 2학년 때 했던 활동과 교육에 대한 관심을 연결 지었습니다. 교과 영역도 비교과 영역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여 해당 내용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입했습니다. 봉사활동은 한 기관에서 2년 이상 활동했습니다.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의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에 따라 추가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동아리의 경우 3년간 문예부 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글쓰기가 좋아서 들어갔지만, 동화를 창작하며 문예부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교사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수상실적, 독서활동, 분리수거 담당을 하면서 느꼈던 사소한 감정에서까지도 교사가 가져야 할 자질을 생각해보고 다른 활동과 연관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한 모든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초등교사를 향한 꿈을 키운다면 청주교대 입학의 문턱에 가까워질 것이라 말해주고 싶습니다.

- 윤리교육과 20학번 송○○



**A** 제가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한 부분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다른 영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자신의 성장과 더불어 개성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수학을 어려워했지만, '비누막 실험을 통해 페르마의 점 알아보기' 활동으로 직접 보고 이해하는 수학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2학년 때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을 그림과 연결해 내용을 심화 학습하고, 3학년 때는 더 나아가 멘토로 활동하면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개념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모두 기재되었고, 성장하는 제 모습과 함께 저만의 색깔을 가진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 이술교육과 20학번 장○○

**A** 3년 내내 초등교사를 일관되게 희망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든지 교사를 희망한다는 점과 교직에 적합한 학생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초등교사는 다양한 경험과 재능이 필요한 만큼 전 과목의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잘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체능 과목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독서도 어느 특정 분야에만 쏠리지 않게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습니다.

- 음악교육과 20학번 장○○

**A** 저는 교육 관련 봉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봉사활동을 구할 때 저는 교육봉사 위주로 찾아봤고 실제로 봉사시간을 모두 학생들을 가르치는 활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매주 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봉사시간을 다 채우고도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입시를 준비할 때는 물론이고,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수업시간이나 교육실습 등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쳐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술교육과 20학번 조○○



# 02 —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했어요!



## Q. 고등학교에서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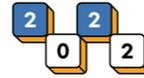
**A**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 친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특수학급 도우미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수교사라는 직업에도 관심이 있었기에, 특수학급 친구와 함께하면서 장애를 좀 더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 수업을 할 때 친구와 함께 움직이거나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는 등, 특수학급 선생님의 조언을 통해 특수학급 친구에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렵더라도 친구에게 차근차근 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친구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면서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일 뜻깊으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만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 음악교육과 21학번 김○○

**A** 저는 '청소년 운영 위원회'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청소년 운영 위원회는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생 단체입니다. 저는 교육과 관련된 부서의 부장을 맡으며 여러 차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 학생 인권에 관한 캠페인은 저에게 가장 뜻깊었던 행사입니다.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찾아 카드 뉴스를 제작해 조례의 핵심을 쉽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SNS에 올린 후 댓글로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에게 상품을 주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저희의 캠페인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까지도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직접 간단한 강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을 신장시키고,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춘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학생들을 선생님처럼 가르쳐본 것이 처음이었던 터라, 그 때의 성취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활동을 해보며 교사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교육과 21학번 김○○



**A**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내 국토순례 행사에서 한국어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연계하여 초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국토순례를 앞두고 한 친구와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국토순례의 장소가 초등학교 수학여행의 단골 코스인 불국사인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국토순례 당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재미있게 배우면서, 스스로 체험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미션지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불국사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초등학생용 불국사 역사 미션지를 완성했습니다. 국토순례를 진행하면서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학교에서 배운 교과목과 학교 활동인 국토순례를 초등교육과 연관 지어서 했던 첫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저를 예비 초등교사로서 한발짝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면접에서도 이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면접관님들께서 정말 좋은 반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관심사를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연계해 활동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 활동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간다면 그게 정말 큰 배움이고 성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체육교육과 21학번 박○○

**A** 3년 동안 교대를 준비하면서 내신 관리는 물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동아리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3년 내내 영어나 봉사와 관련된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는 교육 계열의 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매우 적어서 교육 동아리를 만들거나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대신 영어 동아리에서 제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영자신문 동아리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기사를 조사하거나 작성했습니다. 교육을 다룬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 소개 쪽지에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영어 동아리에서 전래동화를 번역하는 활동을 한 후, 이를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교대를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동아리 내용이 부족할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만큼 원하는 결과물이 나왔고, 이러한 부분이 제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영어교육과 21학번 최○○

# 02 —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했어요!



**학교생활 기록부**

**A** 교대를 희망하며 교육 관련 활동을 많이 했지만 교육 관련 활동이 아닌 활동들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박 키우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소수의 학생들과 담당 교사 한 명으로 꾸려진 '호박 지킴이'는 고등학교 정원에서 호박을 예쁘게 키워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마쳐가면서 생명이 주는 소중함과 이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깜빡하고 물을 주지 않아서 시들어버린 호박꽃을 보며 후회하고, 물을 주어 다시 피어난 호박꽃을 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호박을 직접 키우는 데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은 마치 교사의 책임감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우는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호박이 다르게 자라듯이, 학생들의 성장 또한 교사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활동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 관련 활동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어교육과 21학번 한○○



**202**

**Q. 봉사활동은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A** 교육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1학년 때는 교육봉사 동아리에 가입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했습니다. 2학년 때는 중학생과 더불어 초등학생도 함께 학습지도를 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글부터 초등학교 교과 내용까지 학습의 전반적인 부분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센터에서 생활하는 것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3학년 때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기존에 하던 교육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원격으로도 가능한 봉사활동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택한 봉사활동은 선플달기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선플을 20개씩 달게 되면 봉사시간이 1시간 적립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아이들에게 선하고 깨끗한 네트켓 문화를 꼭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양보다는 질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봉사시간이 많더라도 그 속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봉사활동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봉사시간이 적더라도, 1시간씩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 음악교육과 21학번 문○○

**A** 고등학교 3년 동안 교육 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학교 진도를 보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도 하고, 점자 동화책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봉사를 하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책임감입니다.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일회적으로 봉사를 하기보다는, 아이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봉사를 진행하며 많이 깨닫고 느끼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봉사 외에도 통역 봉사,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교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은 외부 봉사활동을 통해 최대한 체험하려 했습니다. 교육봉사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의미를 두고 참여할 수 있거나 성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컴퓨터교육과 21학번 윤○○

# 02 —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했어요!



## 학교생활 기록부

**A** 저는 방송통신중학교에 재학 중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학습도우미로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수학 한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셔서 답답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도형 관련 단원을 공부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연세나 학습 경험을 이해하게 되면서 결과보다는 과정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쉽고 생각해 지나쳤던 기호들도 차근차근 읽고 쓰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면서 친밀감도 느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에게 쉬운 것이 학생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해와 공감은 교사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컴퓨터교육과 21학번 이○○

**A** 저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예비 초등교사로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이해하고, 요즘 초등학생들의 놀이문화 등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교육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미래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저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식생활 지도, 놀이 지도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교육봉사가 아니더라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다양한 활동을 한다면 소통, 배려, 협력 등의 가치를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영어교육과 21학번 천○○

**A** 교육봉사도 꾸준히 했지만 교내 봉사활동에도 이에 못지않게 참여했습니다. 아침 방송, 책 편집위원, 분리수거 등, 여러 가지 교내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진심을 배웠습니다. 교육자란 교육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이러한 마음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봉사가 아니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영어교육과 21학번 한○○



## 2022

### Q. 독서활동은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A** 저는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을 나누어주는 교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교직과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자 노력했습니다. 교직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다른 분야의 책(교과 관련 책)을 가리지 않고 3권씩 읽었습니다. 책을 선정할 때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된 책을 우선으로 골랐습니다. 교직과 관련된 책을 고를 때는 여러 교육 방식과 관련된 책과 더불어 다문화 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책을 선택했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줄거리와 느낀 점을 요약하여, 면접에서 독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면 바로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독서를 한 덕분에 면접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책의 내용을 활용하여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 체육교육과 21학번 권○○

**A** 교과목과 관련된 책은 교과목마다 적어도 한 권 이상의 책을 읽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책도 많이 읽고, 심화한 내용을 다룬 책도 읽었습니다. 이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면접 질문을 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과목 독서보다 더 신경 쓴 분야는 비교과(공통) 독서입니다. 교육과 교양 분야로 나누어 독서를 진행했으며, 적어도 각 2권씩은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문적인 내용의 책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교양 분야는 추천 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다양한 소설이나 수필을 읽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된 인문독서실천연구회에도 참여하여 독서를 기반으로 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 음악교육과 20학번 김○○

**A** 독서활동에는 책 제목과 지은이 정도만 기재되지만, 이 정도로도 제가 희망하는 전공이나 지적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염두하고 독서를 했습니다. 학생부에 기재되는 독서활동은 크게 공통과목 독서와 교과과목 독서로 구분이 됩니다. 공통과목 독서의 경우, 제가 희망하는 전공에 초점을 맞춰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서적을 읽었습니다. 교과과목 독서의 경우, 해당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독서를 했습니다. 이렇게 독서를 한 결과, 학생부에 정말 많은 양의 책이 기재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많은 양의 독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교대에 오기를 희망했거나 실제로 함께 교대에 합격한 친구들의 독서량은 저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책을 읽다 보니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독서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몇 배로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리하면서까지 독서활동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궁금해서, 읽고 싶어서 책을 읽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었다면 느낀 점과 함께 그 책의 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기를 추천합니다. 저 또한 독서 후 기록하는 습관 덕분에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음악교육과 20학번 박○○

# 02 —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했어요!



## 학교생활 기록부

**A** 어떤 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는 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책을 읽든 새롭게 배우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상당히 많이 독서를 한 편이었습니다. 학생부에 기록된 책은 약 50권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의 책을 읽었습니다. 평소 좋아했던 자기계발서부터, 소설, 각 과목과 관련된 심화 서적, 교육과 관련된 책들까지, 이 모든 책은 제가 3년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독서활동이 학생부에 쓰기 위한 활동으로 전락해버리면, 독서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일종의 하기 싫은 과제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읽고 싶은 분야의 책을 마음껏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서에는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려고 하는 그 책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값진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체육교육과 21학번 박○○

**A** 문, 이과 통합이 교육의 중점이 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육 도서뿐만 아니라 배우는 모든 과목과 관련된 도서를 하나 이상씩 읽었습니다. 진로 인문학, 10대가 갖춰야 하는 소양 등 인성과 미래에 관련된 인문학 도서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혹시나 어떤 분야의 책들을 읽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친구들은 배우는 모든 과목에서 연관되는 책을 한 권씩 정해 읽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저는 독서를 했다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수업 시간에 발표 활동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을 발표 내용과 연관 지음으로써 책을 읽으면서 느낀 소감, 생각, 책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정말 이 책을 읽었고, 이 책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들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드러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과학교육과 21학번 임○○

**A** 제 학생부를 보면 1학년 때는 생명 관련 공학자, 2학년 때는 정신과 의사, 3학년 때는 교사로 변동이 심합니다. 진로는 계속 바뀌었지만 대신 때마다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진로에 맞게 1학년 때는 생명 관련 도서, 2학년 때는 심리학 도서, 3학년 때는 교육 관련 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 감명 깊게 읽은 시집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을 기재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특히 교과와 관련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심화한 활동을 했습니다. 물리 관련 도서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해서 진행했습니다. 생물 관련 도서에서 나온 지식을 이용해 짧은 소설 쓰기와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는 인상적인 부분이나 일상생활에 변화를 준 부분 등을 기록했습니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은 해당 작가의 다른 책을 읽으며 연쇄적인 독서를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독서활동을 통해 제 취향과 성향, 관심사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학생부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과학교육과 21학번 지○



**Q.** 교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생부는 대부분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를 둘 수 있을까요?

**A** 다른 친구들과 학생부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테마를 잡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융합형 인재로 잡았습니다. 이과여서 수학이나 과학에서의 활동과 학업적 내용은 잘 드러났지만, 인문학적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문예부 동아리에서 직접 문학을 창작해보며 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또래상담부 동아리를 통해 소통의 능력을 키웠습니다. 관련 교과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많이 하거나 발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모든 과목에 열정으로 임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외에도 영어 토론 대회에 나가 언어적인 부분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화 그리기, 시 낭송 등 분야를 막론하고 교내 대회에 나가면서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융합형 인재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노력했습니다.

테마를 잡는 것 외에도 학생부에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새로운 방법으로 채워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장, 부반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리더십과 공동체 의식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국제교류에 참여했습니다. 인도, 태국 친구들과 꾸준히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그들의 문화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급 내에서 진행하는 습관에 관련된 프로젝트의 관리자를 맡아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프로젝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학생부에서 부족했던 리더십과 공동체 의식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부족한 점들을 색다른 활동으로 보충한다면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된 학생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과학교육과 21학번 임○○



# 02 —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했어요!



## 학교생활 기록부

**A** 특색 있는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 교육 외에 다른 관심 분야를 학생부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환경보호, 지구온난화에 관심이 많아 이와 관련한 독서, 자물, 교과 활동들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1학년 때는 공정무역과 관련한 책을 읽으며 환경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교실 미화 활동에도 자발적으로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학급 친구들이 제 모습을 보고 환경상 후보로 추천하여 2년 연속 환경상(모범학생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3학년 때는 학급 환경부장으로서는 올바르게 분리수거 하기 프로젝트, 에어컨 적정온도 유지하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교육 분야 못지않게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표현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에게 환경 교육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해보며 저의 주된 관심사인 '교육'과 '환경보호'를 연관 짓는 활동을 했습니다. 교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생부가 비슷하다는 의견은 교육 계열에 대한 관심만을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 외의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학생부에 담는 것도 자신만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어교육과 21학번 천○○



## 면접 준비

**Q.**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그룹스터디

학교에서 교대를 준비하는 친구 2명과 함께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3학년 2학기 개학일부터 매일매일 방과 후에 1시간씩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1시간 분량으로 면접 대비를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면접일 직전까지 거의 모든 교대의 기출 문제를 풀어봤을 정도로 철저하게 연습했습니다. 그룹 스터디 덕분에 저를 포함하여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 모두 우리 학교에 나란히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개인별 교직원, 교육관 확립

교직원, 교육관을 확립할 때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으면 가장 좋습니다. 경험과 연관된 교직원, 교육관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교직원, 교육관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제 모의수업 경험과 연관 지어 '열정적인 교사'라는 교직관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 음악교육과 20학번 김○○

**A** 우선 자신의 학생부를 학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활동은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억을 천천히 되짚으면서 활동의 계기와 과정, 배운 점 등을 기록해가며 면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부의 내용을 단순 암기식으로만 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부를 학습하면서 그에 대한 예상 질문을 만들어봅시다.

더불어 많은 연습만이 합격을 이뤄냅니다. 청주교대에서 주관하는 관련 프로그램이나 고등학교 혹은 소모임에서 이뤄지는 모의 면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면접은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므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답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의 면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변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녹화를 통해 자신의 면접 모습을 점검하고, 모의 면접 시 막혔던 질문에 대해서 바람직한 답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 체육교육과 21학번 김○○

# 02 —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했어요!



## 면접 준비

**A** 기본적으로 학생부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운다는 생각으로 면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면접 직전에 학생부에 있는 활동들의 내용이나 느낀 점 등을 전부 다 복기하기는 어려우므로, 활동을 마치고 난 직후에 간단히라도 적어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활동 하나가 끝나면 느낀 점을 적을 수 있도록 종이를 따로 주셨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교육관이나 교육과 관련된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교육적 가치관을 먼저 확립하고, 이에 맞춰서 교육과 관련된 질문에 답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학교생활 중에 했던 경험이나 독서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와 함께 실전에서 긴장하지 않도록 모의 면접을 했습니다.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과 모의 면접을 하면서 다양한 질문들을 주고받고,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침착하게 답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특히 영상을 찍어서 제 말투가 어떤지, 속도나 표정은 어떤지, 자세는 어떤지 꼼꼼히 살펴보고 고칠 점이 있다면 고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실제 면접에서 떨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음악교육과 21학번 박○○

**A**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답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할 때 구체적인 사례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교사를 꿈꾸게 된 이유,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하고 싶은 연구 주제, 교대 진학을 결심한 계기 등, 교직에 관한 열정과 관심을 확인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경험과 계획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와 교육 관련 도서가 실제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을 위한 답변을 달달 외우기보다는 질문에 맞게 자신만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오래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육뿐만 아니라 환경, 건축, 시사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뉴스를 보거나 짧은 강연이라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중요하거나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면접 당일까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실전 연습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모든 교대의 면접 기출 문제를 보고 실제 면접처럼 연습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 앞에서 연습하는 것도 좋고, 카메라로 촬영해서 자세나 말투, 습관 등 고쳐야 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면접 스터디를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면접 연습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꾸준히 답변 내용을 보충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체육교육과 21학번 박○○

## 2 2 0 2

**A** 학생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자신의 학생부에 적힌 내용은 전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열 번, 스무 번을 정독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교대를 준비하는 친구와 함께 면접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학생부를 바꿔보고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교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는 제 학생부의 어떤 점이 중요해 보이는지,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를 색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부 외에도 제가 얼마나 우리 대학에 관심이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대학에서 진행하는 사업, 동아리, 장학제도 등을 찾아보면서 대비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전 연습을 실천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어보면서 말투, 억양, 목소리 크기, 말 빠르기, 자세, 표정, 자주 쓰는 추임새 등을 파악하고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았습니다.

- 과학교육과 21학번 임○○

**A** 수능 전까지는 학생부를 잘 숙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면접에서 학생부에 대해 질문하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상 관련 활동, 다른 과목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 비교적 자세하게 작성돼있지 않은 활동까지 답변을 준비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후에야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실천처럼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부 관련 질문들과 대학교 홈페이지나 입시 관련 카페에 들어가면 나오는 면접 질문들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제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답변을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점점 즉흥적인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도와준 사람들이 답변할 때의 장단점, 자세와 목소리 크기, 꼭 이야기해야 하는 내용 등을 알려주어 잘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실제 면접 때는 제 생각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 과학교육과 21학번 지○○





**면접**  
**준비**

**Q.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이 있다면?**

**A** 청주교대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순간부터 청주교대를 목표로 준비하며, 누구보다 즐겁고 찬란한 대학 생활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긴장을 살짝 늦추고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불리는 MT를 가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점을 챙겨 장학금을 받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해외 연수를 가고 싶습니다. 스무 살에 가는 해외 연수는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연수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 교육학과 2학번 구○○

**A** 저는 대부분 예상했던 면접 질문에서 질문을 받았습니지만, 생각지 못한 몇 가지 질문을 받아 맘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장 당황했던 질문은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갈등을 조금 엉뚱한 발상으로 해결하였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엉뚱하다는 것이 개인에 따라 그 척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엉뚱했던 갈등 해결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아리 시간에 밖으로 나가 축구를 하자는 학생들과 교실에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자는 학생들이 대립한 적이 있었는데, ‘결합’을 통해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밖으로 나가 축구를 하자고 한 학생들에게는 축구와 같은 체육 활동에 대한 수업 지도안을, 교실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자고 한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가르쳐보고 싶은 과목에 대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게 하는 활동을 진행하며 갈등을 해결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은 왜 많은 교대 중에 청주교대에 지원했는가?’라는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청주교대에 합격하기 위해 청주교대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많이 알아보며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 면접에서 질문을 받게 되니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정리하여 교육실습과 성장지원교수제를 예로 들어 답변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나갈 수 있는 교육실습을 통해 교사로서의 경험을 쌓고 역량을 신장시키고 싶다는 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성장지원교수제를 통해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뵈어, 스스로 성장하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교사로 거듭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준비했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상했던

**2**  
**0**  
**2**

질문을 받아도 저처럼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침착하고 조리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황하더라도 겉으로 티를 내지 않고, 차분히 생각하며 답변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 음악교육과 2학번 문○○

**A** 우선 ‘학생을 보니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장점으로 발휘될까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 초등교사는 중, 고등교사와는 달리 모든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양한 재능은 추후 교단에 섰을 때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내의 행동 특성 및 발달에 기재된 내용을 질문받았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자신의 자랑을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3학년 때 전교 부회장 활동을 하며 여름에 긴바지의 교복 대신 생활복을 입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한 건의안을 통과시킨 경험을 토대로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 저는 진인사대천명의 구절을 인용하여 청주교대 입학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오늘의 면접에 후회가 없음을 밝히며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 음악교육과 2학번 신○○

**A**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PPT 등의 발표 자료를 만드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많은 발표 활동에 참여했기에 발표 자료를 만드는 저만의 방법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지식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어서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답변을 생각하는 도중 ‘차근차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 ‘차근차근’을 응용하여 제재 및 주제에 맞는 기초와 골자를 다지는 방법부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면접 답변을 만들어냈습니.

또 하나는 ‘역사 중에 어느 부분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대사를 답했습니다. 물론 ‘근대사나 중세사와 같이 흥미로운 부분이 아님에도 고대사를 가르치고 싶은가?’라는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 하지만 역사와 사회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원 및 시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고대사를 가르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두 가지를 분석해보면 ‘학생인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을 교사가 됐을 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당황하지 않고 앞서 언급된 표현처럼 ‘차근차근’ 자신의 답변과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면접 장소 내에서 끝나는 답변이 아닌, 미래의 교사로서 자신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컴퓨터교육과 2학번 이○○

# 02 —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했어요!



## 면접 준비

**A** '동아리 대표로 활동했다고 적혀있는데, 본인은 어떤 리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지만, 이 질문을 통해 저를 되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동아리장으로서 2년간 활동하며 변화한 제 모습을 바탕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 결정에 확신이 없어 동아리를 이끌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한 제 모습에서도 동아리 부원들을 의견을 경청한다는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친구들과 후배들을 보며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리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무엇인가에 대해 추가 질문을 받았고, 동아리 회의를 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관련지어 답변을 드렸습니다.

- 영어교육과 21학번 천○○

**A** '관심 있는 과학기술이 있어요?'라는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AR 기술에 관한 공부를 해왔기에 AR 기술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이에 '교실에서 AR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라는 추가 질문을 받았고 저는 다소 당황했습니다. 최대한 당황하지 않은 척 노력하며 답변을 생각했습니다. 과학 수업을 떠올렸습니다. 평소 과학을 공부하면서 실험을 생동감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던 터라 질문과 동시에 AR 기술을 접목한 수업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AR 기술을 활용한 천문관을 교실 속에 구현함으로써 별을 관측하는 활동을 교실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을 구상해 대답했습니다.

'2학년 때 과학 성적이 1학년 때보다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을까요?'라는 질문 또한 기억에 남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성적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말해도 핑계로 들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1학년 때와 2학년 때 배운 과학 과목 특징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저에게 융합적 태도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인정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해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답변을 마쳤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단점을 꼭 찌르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를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되 대학교에 입학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 영어교육과 21학번 한○○



## Q. 면접 당일 꿀팁은?

**A** 면접 당일 이른 시간에 출발해야 했기에 전날 일찍 잤습니다.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보다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답변을 훑는다는 느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와서 새로운 질문을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만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왔던 저를 믿고 가볍게 마무리한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면접 당일 복장으로 얇은 흰색 니트와 경량 패딩을 입고 하의는 검정 슬랙스, 겹옷으로는 강추위로부터 저를 보호해줄 롱패딩을 입었습니다. 복장은 최대한 단정하게 갖춰 입을 것을 추천합니다. 추울 수도 있으니 겹옷은 최대한 따뜻한 걸로 입으세요. 또한 머리가 부스스하면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만지게 될 수 있으니 뒷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핫팩과 초콜릿, 따뜻한 물이 담긴 보온병을 챙길 것을 추천합니다. 면접 장소가 따뜻하긴 하지만 긴장을 하면 몸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핫팩으로 손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당이 떨어질 땐 초콜릿을 먹는 것을 권합니다. 대기실에서 긴장이 될 때면 면접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신다면 긴장도 풀어지고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면접장에 들어가서 대답을 술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관과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질문을 받을 때 초롱초롱한 눈으로 면접관을 바라보고, 대답할 때 생긋생긋 웃는다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할 때는 양괄식 답변을 추천합니다. 답변을 시작할 때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듣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잠재되어있는 초등교사의 역량을 면접관님께 마음껏 뽐내보세요.

- 체육교육과 21학번 김○○

# 02 —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했어요!



## 면접 준비

**A** 면접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면접 당일에 가져갈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면접 당일에는 정말 떨리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가져가도 다 읽지 못합니다. 저는 제일 어려웠던 면접 기출 문제와 시사 이슈를 정리한 자료를 들고 면접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정리해둔 자료 외에도 면접 당일에 꼭 챙겨야 하는 준비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가져가서 목을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 같은 간식은 긴장을 푸는 데에 도움이 된답니다. 면접을 거울에 보기 때문에 대기실이 추울 수 있으니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긴장하면 손이 차가워져서 핫팩도 준비해 갔습니다. 면접 당일 가져갈 준비물은 면접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접 질문이 어렵다면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 있는 태도와 겸손한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할 때는 면접관과 눈을 맞추면서 말하는 것도 좋지만, 막상 면접실에 들어가서 면접관의 눈을 보면 더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면접관의 눈 살짝 아래를 보면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천천히,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할 때는 미소를 짓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으며,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면접실에 들어가고 나올 때 바르게 인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가진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면접실에 들어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 체육교육과 21학번 박○○



## 예비 청주교대생들에게

### Q. 예비 청주교대생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밀려오는 부담감, 불안함에 울면서 잠든 날도 많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공부하고 학교생활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서는 학업과 스트레스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었지만, 조금 더 빨리 방법을 알았으면 덜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꼭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기숙사 친구랑 나가서 산책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이처럼 거창한 취미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소소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 좌우명은 '3년 죽자'였습니다. 좌우명대로 3년을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토록 원했던 목표는 이를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은 지금 생각하면 웃어넘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기억이 되었고, 제가 이룬 목표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뿌듯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위해서 투자하는 3년 동안 많이 힘들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웃을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조금만, 아주 조금만 참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 음악교육과 20학번 김○○

**A** 여러분에게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생활을 생각하면 '치열함의 연속', '불안함' 등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정말 내가 꼭 가고 싶었던 목표 대학만을 바라보고 '불합격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입시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법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청주교대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겪었거나 겪으신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당황하고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합격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청주교육대학교에서 만납시다!

- 음악교육과 20학번 박○○

# 02 —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했어요!



**예비**  
청주교대생들에게

**A** '초등교사를 꿈꿔왔다면, 교대 입학은 꿈꿔왔다면, 꼭 도전하세요.'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삼수를 해서 우리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포기하지 않고 제 꿈을 위해 도전한 것이고, 동시에 제가 가장 후회하는 점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과 성적이 같은 학교의 다른 친구들보다 낮다고 교대에 지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대에 지원하는 친구들의 교과 성적이 더 높으니까 나는 1단계에서 불합격하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간절히 꿈꿔오던 교대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대도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 학교는 1단계에서 교과 성적만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저의 경험을 토대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일반고를 졸업했고, 교과 성적도 교대에 안정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번의 도전에서 모두 1단계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초등교사를 꿈꾸었던 제 3년간의 모습이 담겨있는 학생부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과 성적이 낮다고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생부가 부족한 교과 성적을 채워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기적을 가져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비중도 40%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도전을 망설이시는 재수생, 장수생 분들에게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꼭 도전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년 늦게 대학에 다시 입학한다는 것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했던 고민이 무색할 만큼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대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부터 이미 가정을 꾸리고 계신 40살까지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여러분의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도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꼭 청주교대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조금만 더 힘내세요!

- 체육교육과 21학번 박○○

2 2 0 2

**A** 저는 고등학교 3년간 초등교사를 꿈꿔왔지만, 막상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 제 꿈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서를 쓸 때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해서 여름방학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는데, 꿈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 교대 진학을 포기했고, 전형도 모두 교과 전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서 마감 5일 전에 생각이 바뀌었고 5일 동안 미친 듯이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5일이 제 진로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바는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성적이 부족해서 불합격하지 않을까 생각하더라도 일단 한번 도전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자신의 상황과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저처럼 일찍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자의 성향, 진로, 학생부, 성적은 모두 다르기에 저의 방식이 무조건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저보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학교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돌아켜보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미술교육과 19학번 봉○○

**A** 우선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1학년부터 어떤 사람은 2~3학년 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조금 더 일찍 준비했다면, 그때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할 걸 하는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모두가 꼭 합격해서 청주교대에 입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교육과 21학번 이○○

**A** 초등교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수험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지친 상황일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대 입학이라는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 종합대학을 다니다가 자퇴를 한 뒤 교대에 들어왔습니다. 종합대학과 달리 교대는 규모가 작지만, 결속력은 강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대 특유의 끈끈하고 서로 잘 어우러지는 분위기는 교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교 생활은 평생 한 번뿐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동아리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재미를 찾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 미술교육과 18학번 정○○



## 강의 및 대학 생활

### Q 청주교대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A** 우리 학교는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입니다. 따라서 초등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1학년 때는 교양 과목과 예체능 실기 과목을 주로 배웁니다. 교육 심리, 특수 아동의 이해와 같은 과목이나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과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실기 과목이 현격히 축소되고 교육학 이론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지도안 작성법을 배우고, 수업 실연을 하는 수업이 등장합니다. 교과서 재구성, 팀 티칭 등 직접적으로 초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직접 해보게 됩니다. 3학년 때는 과목별 수업 지도 능력을 향상하고 전문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1~2학년 때는 다른 과와 동일한 과목을 수강하여 같은 수업을 듣는데, 3학년 때부터 본인이 선택한 심화전공에 맞는 심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4학년 때는 초등교사 임용고사 준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매우 몰두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수업 외에도 교대에는 '교육실습'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1학기에 수시실습으로 진행되어 학교 및 학급, 학생이 서로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참관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타 학년의 교육실습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수업을 하게 됩니다. 2~3학년은 2학기 때 2주 동안 교육실습이 진행되는데, 직접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4학년 때는 1학기에 한 달간 교육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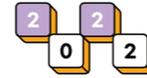
- 사회과교육과 19학번 김○○, 미술교육과 18학번 정○○

### Q 수업은 모든 학생들이 같이 들나요?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우리 학교는 교대다보니 다른 종합대학과는 수업을 듣는 방식이 다릅니다. 대다수의 학교는 수강 신청을 통해 원하는 대로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학교는 대부분의 시간표가 학교에 의해 정해져서 나옵니다. 일부 몇 과목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정해져서 나오는 수업은 같은 학과(심화전공) 동기들과 함께 들습니다. 물론 교양과목과 교육학 관련 과목의 경우 수강정정을 통해 다른 학과(심화전공)의 같은 과목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방식은 정형화되어있지 않고 교수님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지필 평가, 팀 과제(팀플),



발표, 수업 시연, 과제 대체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지필 평가의 문제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많고, 선택형이나 단답형의 문제도 간간히 출제됩니다. 팀 과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형태로 비교적 오랜 기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시연은 대부분 2학년 이후부터 각 과 교육론을 수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각 강의의 특성에 따라 필요 시 수업 시연으로 평가를 진행하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시험이 과제로 대체될 때는 대부분 보고서 형식의 글을 제출하게 됩니다. 실기 과목의 경우에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시험이 이뤄집니다. 직접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작품을 만드는 등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 국어교육과 20학번 김○○, 미술교육과 18학번 정○○

### Q 예체능 과목에는 재능이 없는데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A** 교대에서 배우는 예체능 계열 과목들은 재능이 없더라도 노력만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 분야를 경험해봤거나 재능이 있다면 수업을 따라가기가 더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능이나 경험이 없다고 해서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피아노를 어렸을 때 몇 번 쳐본 이후로 쳐본 적이 없어, 잘 치지 못하는 상태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실기 과목의 피아노 수업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학교 피아노실에서 꾸준히 연습하면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성적도 원하는 만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능이 없더라도 본인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 동기들과 서로 고민해보고 함께 도와가며 수업을 듣는다면, 더욱 쉽고 재미있는 수업 시간이 될 것입니다.

종합대학과 교대의 차이점 중 하나가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체능 활동이 학교생활에서 주는 의미도 큼니다. 예체능 과목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기면서 수업에 임한다면 다양하고 풍성한 활동을 경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윤리교육과 20학번 지○○

# 03 — 선배가 들려주는 청주교대 이야기



## Q 교대 생활을 위해 신장하면 좋을 능력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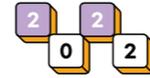
**A** 교대 생활을 위해 '사람들 앞에 서서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대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커리큘럼과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업 시연이나 실제 교사가 되었을 때 필요한 자질에 대해 고민해보고 다져가는 수업이 많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문답 수업부터, 서로의 의견에 대해 생각해보는 토의/토론 수업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 시연하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교수님과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설계한 수업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서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대 생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교사라는 직업은 항상 아이들 앞에서 말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히 전달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꾸준한 연습을 통해 이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 윤리교육과 20학번 지○○

**A**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걱정이 많아서 제 의견이 잘못된 의견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을 하면서 토론, 토의, 조별 과제 등 제 의견을 표현해야 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고 팀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고 피력하는 과정을 통해 저만의 수업을 구성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수업 중 토론, 토의 활동이나 말하기 대회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면 좋겠습니다.

- 윤리교육과 20학번 홍○○



## Q 청주교대만의 장점이 있다면?



**A** 첫째, 지리적으로 가운데에 있어 다양한 지역에서의 접근이 쉽습니다. 실제로 청주가 아닌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체육교육과 19학번 기준으로 24명 중 7명만 청주 출신이고 나머지 17명은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등 서로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 됩니다. 서로의 지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며 폭넓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임용고사를 볼 때 세 지역(충북, 대전, 세종)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교대의 위치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임용고사를 볼 때 1차에서 가산점 6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충북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서 다른 교대보다 가산점을 받는 지역의 수가 많습니다. 특히 대전이나 세종 같은 광역시 단위의 지역은 경쟁률이 더 높는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서 지역을 선정할 때 유리합니다.

셋째, 학내에서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수영장 건물이 완공되어 학교 안에서 수영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수영을 배우게 합니다. 초등교사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수영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시설을 빌리지 않고 학내에서 배울 수 있어서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장지원교수제'를 통해 좋은 교수님을 만나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과 담당 교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주어 교수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주선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과의 시간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과 책을 지정해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 덕분에 어려웠던 교수님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체육교육과 19학번 이○○, 음악교육과 20학번 장○○





## 동아리

**Q** 청주교대 동아리 활동은 어떤가요? 재미있나요?



**A** 우리 학교의 동아리에는 축구/농구/테니스/배구/티볼 등의 운동동아리, 댄스/보컬/밴드/사물놀이/피아노 등의 공연동아리, 교육놀이/천체관측 등의 학술동아리, 그리고 종교동아리와 봉사동아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동아리들이 존재해 동아리 활동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기구인 동아리연합회가 있어서 동아리별로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아리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동아리 해오름제, 동아리의 밤 등 동아리들을 위한 행사도 진행합니다.

저는 2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운동동아리, 공연동아리, 학술동아리 세 개를 모두 경험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아리 활동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학교 특성상 대부분의 수업을 동기들과 듣기 때문에 다른 심화전공의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아쉬웠는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다른 심화전공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에게는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또한 평소 해보고 싶었지만 쉽게 도전할 수 없었거나 혼자 할 수 없는 활동들을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 뿌듯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즐겁고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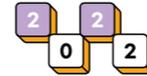
- 체육교육과 19학번 이○○

**Q** 청주교대 동아리 소개



### 퀴디치 동아리 더머글스

혹시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퀴디치를 아시나요? 우리 학교의 더머글스 동아리는 전국 대학교에 단 두 개밖에 없는 퀴디치 동아리입니다. 특히 교대 중에서는 유일한 퀴디치 동아리입니다. 실제로 날지 못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퀴디치의 룰을 대부분 적용해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퀴디치 동아리가 있는 다른 학교인 서울대학교 팀과 연합 MT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국내 팀이 많지 않아 이탈리아, 서울 등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에 국가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실제로 2019년에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안컵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 댄스 동아리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는 춤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연하는 동아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 공연을 하며, 해오름제와 동아리의 밤과 같은 교내 행사에도 참여합니다. 다른 학교 축제와 공연에 찬조를 나가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직접 공연하는 대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새내기 입학 축하 영상, 새내기 새로배움터, 학위 수여식 축하 영상, 버터플라이 정기 공연, 해오름제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티볼 동아리 워너비스

워너비스는 전국교육대학교 티볼 대회에서 7년 동안 3위 이상 입상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평소 체육관과 운동장을 오가며 연수를 진행합니다. 타격 연습이나 캐치볼을 하기도 하고, 연수 인원이 많은 날은 두 팀으로 나눠 실제 경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워너리그'라는 교내 티볼 리그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워너리그에는 평균 4팀(한 팀당 1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과 단위로 리그에 출전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지역 티볼팀과의 교류전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류하는 팀은 안산 티볼팀으로, 2019년부터 5회 넘게 교류전을 진행해왔습니다.

### 피아노 연주 동아리 크레센도

크레센도는 포핸즈 피아노(두 명이 네 손으로 한 피아노를 함께 연주하는 것)를 특색 활동으로 하는 피아노 연주 동아리입니다. 매년 연주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연습한 실력을 선보입니다. 클래식, 재즈, OST, 자작곡 등 장르의 제한 없이 원하는 곡을 직접 정하여 연주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져서 비대면 활동으로 대체하여 운영했습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피아노 연주 영상 이벤트를 하고, 온라인 연주회를 개최하여 유튜브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피아노 연주 실력에 상관없이 피아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즐겁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율리교육과 20학번 박○○, 음악교육과 20학번 장○○





## 교육실습

**Q** 교육실습을 통해 무엇을 배우나요?



**A** 교육실습의 가장 좋은 점은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해보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실습을 하면서 학생 중심 수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육실습을 통해 교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열정을 가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교육실습에서는 다양한 세미나도 진행되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습공동체, 학부모 상담 등의 강의를 준비해주시는데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제 수업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참관하며 수업 지도안에 맞춰져 있는 전형적인 수업이 아닌 자유로운 수업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할지에 대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음악교육과 19학번 김○○

**A** 교육실습을 나가면 실제 수업을 참관하고 교수법에 대한 특강을 듣습니다. 1학년 때는 수업 참관만 하고 2학년부턴 직접 수업 시연도 합니다. 교육실습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교육실습을 통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 배우는 지식은 아무래도 이론적이어서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실습을 하면서 교수법과 현장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과목마다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다양한 학생들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서 교직에 대해 갖고 있던 의문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육실습 때가 아니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실습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물어보곤 합니다. 특히 2학년 때는 수업을 구성하고 지도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첨삭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지도안 작성법을 면밀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교사라는 직업에 적성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실습을 하는 동안 학생들과 부대끼며 현장의 분위기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교육실습을 하고 난 후 적성에 잘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진로에 대해 다시 고민할 수 있고, 적성에 잘 맞는다고 느낀다면 교사라는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미술교육과 19학번 박○○

## 해외교육실습 및 해외교육봉사

**Q** 해외교육실습과 해외교육봉사는 어떤 건가요?



**A**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 학기마다 해외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할 수 있는 지역도 미국의 유타, 오리건, 호주의 애들레이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가 확산하여 기존에 이루어지던 프로그램 대신 온라인 영어연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때에 이어 3학년이 되어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연수는 학교 방학 기간 중 4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수업 구성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토론해보고,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배우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캐나다의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 방향을 바탕으로 수업 구성 요소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시연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한국어가 아닌 영어여서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영어로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앞으로 교육 관련 용어나 어구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어를 계속 접하게 되니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바로 말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수업에서 발제되는 질문들이 평소 한국어로도 많이 다루는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 의견을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점차 영어 실력이 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있어 해외교육실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걱정이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참여해보니 괜한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영어 연수를 통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나칠 뻔했던 방학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 미술교육과 19학번 갈○○

# 03 — 선배가 들려주는 청주교대 이야기



**A** 저는 호주 애들레이드로 해외교육실습을 다녀왔습니다. 간단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주로 떠나기 전, 초등학교에서 수업할 한국 문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을 소개하는 수업 자료와, 한글과 한복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만들기 활동, 한국 소개 영상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가야 하는 자료나 준비물, 조그만 선물도 함께 챙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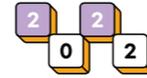
제가 간 학교는 'Coromandel valley primary school'으로, 같이 실습을 간 5명의 학우들과 함께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학년 반에 배정이 되어 보조 교사로서 선생님의 수업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더 필요한 학생들을 도우며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주 동안 모든 수업을 참관하며 호주의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생생하게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해외교육실습의 경우 한국에서의 교육실습보다 수업(한국 문화 수업 혹은 추가 교과 수업)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소통을 보다 심도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의 건물이나 수업 공간과 같은 물리적인 교육환경부터, 선생님들의 지도 방식, 아이들과의 관계, 수업 교구와 교수법 등, 생생한 현장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께서 실습생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즐겁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교사라는 직업의 가치에 대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타국에서의 수업 방식을 접하며 예비교사로서 보다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반 아이들이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주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실습 중인 저희들을 정말 좋아하고 잘 따라주었습니다. 준비해 온 한국 문화 수업에도 큰 관심과 열정으로 임해주었습니다. 실습을 함께했던 학우들 모두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을 가장 힘들어했을 만큼, 아이들과의 깊은 유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될 해외교육실습 프로그램에 여러분도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미술교육과 18학번 김○○

**A** 저는 1학년 여름에 미국 유타에서 이루어지는 해외교육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여름의 유타 교육실습 프로그램은 다른 교육실습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2개의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실습한 학교는 'Cherry Hill Elementary School'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계절학기의 형태로 오전 수업만 진행하는 학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담임 선생님의 수업 보조와 더불어 간단한 한국 문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실습한 학교는 'Dixie Sun Elementary School'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약 2주 동안 실습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저희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줘서 그런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부끄럼 없이 질문을 하여 즐겁게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스스럼없이 대해 주셔서 실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제가 진행했던 수업은 한국 문화 수업 중에서도 우리 교장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도시에는 무엇이 있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처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긴장한 것이 무색하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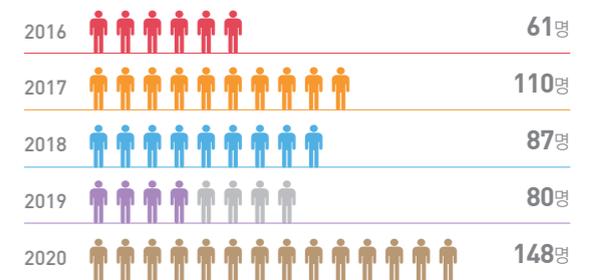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제 수업에 참가하고 집중해주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갔다 온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생들과 학교를 생각하면 마음이 몽클해집니다. 해외교육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학생들과의 교류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졸업 후에는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교육시스템과 문화를 실제로 겪어보면서 책으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와 다른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국어교육과 19학번 하○○



## 해외 교류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 2019년 필리핀 자연재해(화산폭발)로 교육실습이 취소됨  
- 2020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운영함



## 장학제도

**Q** 청주교대 장학제도는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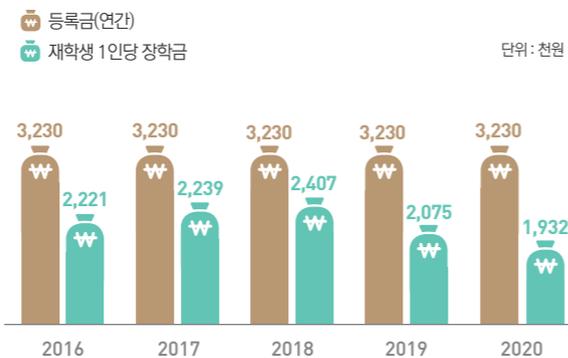


**A** 청주교대는 재학생의 약 70%가 장학금을 받고 있을 정도로 풍부하고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로 크게는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내장학금에는 가계지원장학금, 신입생장학금, 봉사활동장학금, 비전과 실천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교외장학금에는 내리사랑장학금, 충동문화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교내장학금에는 학생들의 활동에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제교육실습장학금,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은 해외교육실습에 수반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장학금입니다. 비전과실천장학금은 '행복, 상상, 연대'하는 세 가지 영역을 키워드로 우리 학교의 인재상에 적합한 예비교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이처럼 우리학교의 장학금 지원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활성화되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입니다.

- 이슬교육과 20학번 장○○

### 장학금

청주교대는 풍부하고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생들의 가능성을 응원합니다.



## 생활관(기숙사)

**Q** 청주교대 생활관(기숙사) 생활은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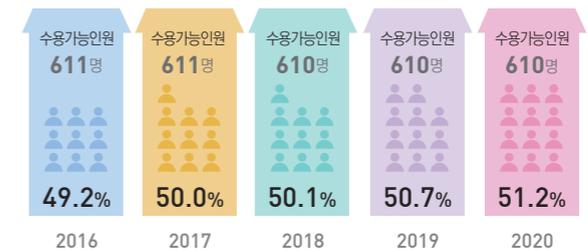


**A** 우리 학교에는 '하늘나래관, 늘기쁨관, 늘사랑관, 늘푸름관', 총 4개의 생활관(기숙사)이 있습니다. 하늘나래관은 BTL기숙사이며, 늘기쁨관, 늘사랑관, 늘푸름관은 재정기숙사입니다. 기본적으로 2인 1실이며,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1인 1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남학생은 하늘나래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여학생은 4개의 생활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래관은 BTL기숙사이기 때문에 다른 기숙사보다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대신 방 안에 화장실과 베란다, 냉장고가 있고, 건물 안에 편의시설이 있어서 생활하는 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늘기쁨관, 늘사랑관, 늘푸름관은 재정기숙사여서 기숙사비가 굉장히 저렴하고, 무료로 세탁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외부에 있고 화장실도 공용으로 써야한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생활관마다 장, 단점이 있어서 가격과 편의시설, 방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합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면 기본적으로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방에서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2인 1실을 이용하면 같은 방을 사용하는 룸메이트와 야식을 먹는 등의 추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1학년 때는 특히나 기숙사에 살면서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습니다.

- 영어교육과 20학번 이○○, 음악교육과 20학번 장○○

### 생활관

청주교대는 높은 기숙사 수용률로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12개 학과 소개

우리 학교는 초등교육과 단일 모집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입학하면서 학과라고 불리는 '심화전공'을 정합니다. 개인이 작성한 지망 순서와 입학 성적을 바탕으로 자신의 심화전공이 결정됩니다. 심화전공은 12가지로 A군(윤리,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컴퓨터)과 B군(체육, 음악, 미술, 실과, 초등, 영어)으로 나누어집니다.



### 학과소개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직면한 도덕·윤리 문제에 대한 본질과 실체를 규명하고, 그 극복 방안을 철학과 윤리,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종합 학문적 접근을 통해 탐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대적 통찰력과 비판의식을 겸비한 초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동서양의 철학과 윤리, 한국의 전통 사상과 윤리, 시민윤리와 사회윤리, 윤리교육의 교수학습 원리, 남북한의 통일문제, 향토문화와 윤리, 그리고 국내외 시사 문제에 대한 쟁점 토론과 현장 체험 등을 중심으로 교수·학습한다.

### 학과활동

우리 과는 학과 특성상 윤리와 철학에 대한 과목을 다양하게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 윤리 과목에 관심이 많았다면 흥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과는 매년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학술부장의 발제를 듣고 학과 교수님들과 학우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윤리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해 발표하고 함께 토의해보면서 윤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 윤리교육과 20학번 박○○, 지○○



### 학과소개

국어 교육적 상황의 구조와 과정을 연구하는 학과로서,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와 인간, 언어와 교육, 언어와 사용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을 다룬다. 국어교육의 본질 및 원리와 같은 이론적인 측면은 국어과교육 탐구에서, 교수·학습 방법 및 실제와 같은 실천적인 측면은 국어과 교수학습방법론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담화연구, 한국문학개론, 문법교육론, 문학교육연구 등의 심화과정 교과를 개설하여 국어교육에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과활동

우리 과에는 동시, 동화, 동화 구연, 우리말의 네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원하는 분과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시 분과에서는 특정 주제로 시를 창작하는 활동을 합니다. 동화 분과에서는 직접 자신만의 동화를 창작하는 활동을 하며, 동화 구연 분과에서 이 때 창작된 동화에 목소리를 입혀 동화를 읽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말 분과에서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학술지를 발간하여 분과별 활동 내용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 국어교육과 20학번 조○○



### 학과소개

초등사회과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초등학교 아동이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있다. 사회과교육과는 이러한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심화과정에서 정치·경제·역사·지리교육론 등 교과교육학 과목과 사회과교육의 배경학문이 되는 교과 내용학과목, 그리고 현장실습 및 답사를 적절히 조합시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학과활동

우리 과에서는 매년 9월에 학술답사를 갑니다. 졸업요건이기 때문에 1학년년부터 3학년까지 1박 2일 동안 모두 참여하게 됩니다. 일반사회, 지리, 역사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거나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학술답사를 통해 사회를 보는 눈을 넓히고, 학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답사가 무산되었지만, 재작년에는 인권을 주제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역사를 주제로 하여 군산의 여러 역사 관련 장소를 방문 및 견학할 예정입니다.

- 사회과교육과 20학번 권○○



## 수학 교육과



### 학과소개

초등수학교육의 전문가 양상을 목표로 수학과 수학교육에 관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아동들이 수학을 재구성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도할 뿐 아니라 초등교사로서의 현장 실무능력을 기르고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학과활동

우리 과에서는 매년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보통 대면으로 진행했지만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학술제를 진행했을 때는 주변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관련 체험활동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마방진 개념을 활용하여 냄비 받침 만들기, 이진법 문제를 풀며 방 탈출 게임하기 등의 놀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학술제를 진행하게 되면서 참여 대상과 방법을 다르게 했습니다. 청주교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교내 학습관리시스템에 게재했습니다. 수학적 내용이 담긴 역할극, 집에서 할 수 있는 수학 교구 및 활동 소개 등을 진행했습니다.

- 수학교육과 19학번 김○○

## 과학 교육과



### 학과소개

학생들로 하여금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탐구적, 통합적으로 지도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과학교수법에서는 과학교육의 기본적인 이론과 생물학 및 실험, 화학 및 실험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수업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기른다. 또한 과학의 각 내용영역을 다루는 강좌에서는 초등학교 과학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하고 폭넓은 선택실습 활동을 통하여 과학을 탐구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학과활동

우리 과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모든 학생이 고루 배우게 됩니다. 매학기 학과 활동의 일환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우리 대학이 개최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온라인으로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야광 별시계 만들기, 속이 보이는 개구리 체험 등을 했습니다. 2학기에는 학술제가 열립니다. 학술제에는 가이아제와 열린 과학관, 두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과학교육과 21학번 임○○

## 체육 교육과



### 학과소개

체육교육과는 체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교재연구와 교수법을 연구실천하며, 반성적 초등교사를 양성한다. 실기과목은 육상, 체조, 무용,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과 라켓구기, 수영, 야영 및 스키 등을 이수하여 초등체육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기능을 익히도록 한다. 나아가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체육학개론, 체육과학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 학과활동

우리 과에서는 다양한 운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구, 축구(여자축구), 농구, 핸드볼, 테니스, 무용', 총 7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1학년 때 원하는 분과 연수에 모두 참여해볼 수 있고, 그 후 분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무용을 제외한 분과는 동아리와 연계해 연수를 진행합니다. 분과 활동을 통해 해당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무용 분과는 4학년 때 무용 발표회를 통해, 다른 분과들은 전국 교대 대회 수상이나 분과 테스트(4학년)를 통해 졸업 요건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분과 활동이 어렵지 않고, 동지들과 함께 운동하다보면 재미도 있기 때문에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체육교육과 21학번 박○○

## 음악 교육과



### 학과소개

초등학교 음악교과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아동의 음악적 기초 기능과 심미적 감수성 신장을 목표로 하는 예술교과이다. 따라서 음악예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력 신장과 더불어 유능한 초등교사로서의 음악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기악실기, 성악실기, 창작실기, 합창지도실기, 피아노실기, 국악실기, 음악교육세미나 등 음악에 관한 이론과 실기과목의 이수를 통해 초등학교 음악교육을 담당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적으로 체득하여 음악교과 전담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과활동

우리 과에는 다양한 분과가 존재합니다. 국악기, 서양악기, 성악, 작곡 분과가 개설되어 있어 폭넓은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의 학우를 모아 새로운 분과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분과 활동은 매년 바뀔 수 있고,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분과 활동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우리 과에서는 졸업 연주회, 정기 연주회, 총동문회 연주회 등 다양한 연주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여름 음악 연주회를 개최하여 자신의 무대를 영상물 통해 뽐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오케스트라 동요 노래방이라는 부스를 운영합니다. 과 활동이 다채로운 만큼,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음악교육과 21학번 문○○



## 미술 교육과



### 학과소개

미술교육과에서는 미술 학습지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유능한 초등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서 미적 표현기술을 익히면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재 및 교수법을 연구한다. 또한 소묘,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 조소, 공예, 서예 영역의 심화과정을 통해 실기와 교수법을 익힌다.

### 학과활동

우리 과에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 분과가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부터 분과를 선택해 수업을 듣고, 4학년 때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졸업전시회를 엽니다. 분과 활동과 더불어 매년 미술과 관련된 활동도 진행합니다. 봄에는 아동사생실기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준비부터 작품 심사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 때는 페이스페인팅 부스를 운영합니다. 가을에는 학술제를 열어 과 학우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다른 과 학우들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 미술교육과 20학번 장○○

## 실과 교육과



### 학과소개

실과교육과는 초등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과 교육에 대한 기본 과정과 실과교육에 대한 전문적 이론 및 실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화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과정은 실과교수학습론 및 교재연구론을 통하여 초등교사로서 실과교수학습지도 능력을 함양하고, 심화과정은 가정영역으로서 현대인의 생활, 식품과 조리원리, 의생활과 홈패션, 화훼원예, 제도와 설계, 생활 공학과 컴퓨터 강의실과 각각의 영역별 전문적 이론과 실기를 강화하여 유능한 초등실과 전담교사양성에 주력한다.

### 학과활동

우리 과에는 가정, 기술, 원예 분과가 있습니다. 매년 다른 분과를 선택해 활동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분과에서는 손소독제, 마약 토스트 등 다양한 만들기와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분과에서는 공기청정기나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원예 분과에서는 드라이플라워나 방향제 등을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또한 우리 과는 국가기술·전문자격증이나 1급 이상의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평소 여러 실기 활동을 즐겨 하거나 손재주가 좋은 분들에게 적합한 학과입니다.

- 실과교육과 19학번 이○○

## 교육 학과



### 학과소개

초등교사가 되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철학·역사적 기초, 사회·문화적 기초, 심리학 기초, 방법론적 기초가 되는 교육학 영역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의 심화를 통하여 교육학의 학문적 역량과 교육현상에 대한 안목을 길러준다. 이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신념을 갖추고 아동의 세계 및 교육활동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지도하며, 현장교육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초등교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학과활동

우리 과는 학생을 위한 교육 방향과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매년 교육답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좋은 배움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혁신학교를 선정하여 방문합니다.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행복씨앗학교로 운영되는 초등학교를 방문했고, 2019년에는 충북의 씨앗학교인 충주예성초등학교에 방문했습니다.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매년 학교에서 진행되는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체험부스를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대화하면서, 학생들과의 소통에 집중한다는 우리 과의 기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교육학과 20학번 홍○○

## 영어 교육과



### 학과소개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영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초등교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영어에 대한 지식, 외국어 교수원리,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수법을 포함한 다양한 영어 교수법 등에 관한 과목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자료와 교육기자재 활용 및 원어민 교수와의 학습활동 등을 통하여 예비교사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과목도 제공한다.

### 학과활동

우리 과에서는 매년 9~10월에 학술제가 열립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만큼 학술제를 준비하면서 동기 및 선, 후배들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영어 게임, 더빙하기, 영어 노래 부르기, 영상(Vlog) 만들기 등을 구성하여 활동합니다. 자유 발표나 뮤지컬 공연, 게임 등을 구성하여 활동합니다. 우리 과는 공식적인 분과 활동은 없지만 비공식적인 소모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새로운 소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임용교사에는 영어실연 면접이 있는데, 과 동기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 영어교육과 21학번 천○○



## 컴퓨터 교육과



### 학과소개

컴퓨터교육과는 초등학교에서 아동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고, 일반 초등교사에게 전산 관련 지식 및 기능을 지원하며, 유용한 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기본 교육 목표로 한다. 컴퓨터교육과의 교과내용은 컴퓨터 관련 기초내용 및 인터넷을 비롯하여 멀티미디어, 웹 기반교육(WBI)등의 최신 내용 등을 포함한다. 컴퓨터교육과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초등교육 현장을 대비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학과이다.

### 학과활동

우리과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관련 기초 내용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웹 기반교육(WBI) 등의 최신 내용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졸업요건도 과 특성에 맞게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국 규모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에 입상하면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술제 열거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합니다. 학술제에서는 3D펜을 이용하여 물건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날 부스에서는 순서도와 관련된 알고리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과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초등 현장을 대비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컴퓨터교육과 19학번 노○○









**청주교육대학교**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5(수곡동)

tel.043-299-0854~5, 0860, 0874, 0622 fax.043-299-0865

[www.cje.ac.kr](http://www.cje.ac.kr)